인문연구 제91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1, No. 2, pp.31~58
http://dx.doi.org/10.21211/JHUM.91.2

대학 고전 읽기 수업 운영 사례 연구*

서수백**

〈차 례〉

1. 머리말
2. 수업 운영 분석
3. 성과와 제안
4.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는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교과 운영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교과는 2019학년도부터 시행된 교과로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중점 활동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다. 매학기 30개 이상의 분반이 개설되는 이 수업은 수강생이 50~60명이 되는 교양필수 교과이다. 1주 1회 2시수로 ‘독서와토론’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 물리적 제약이 있지만 독서 활동을 기반으로 사고력과 표현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교과

* 이 논문은 2020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수업은『논어』,『목민심서』,『멋진 신세계』3권을 주교재로 하여 강의, 독서노트, 글쓰기, 발표와 토론, 수업 연계 비교과프로그램 등을 주요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수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 읽기와 토론의 위상은 취업률을 대학 존재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참인재를 길러 내고자 하는 대학의 실천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고전독서를 통해 길러진 인문학적 소양은 취업에서도 발휘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역량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고전 교육은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고전 읽기 수업 사례 분석은 그 토대가 된다.

주제어: 고전 읽기, 토론, 교양교육,『논어』,『목민심서』,『멋진 신세계』, 독서노트

1. 머리말

의사소통 교육에 있어 글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의 통합 교육은 지식의 습득과 축적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고 나아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효율적인 교수법이자 교육의 방향이다. 교수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실 수업은 점차 지양되고 학생이 수업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이 교육의 지향점이자 방침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에서도 글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 통합형 교과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설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중 ‘독서’를 중심으로 한 교과 운영은 글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 통합 교

과 운영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으로서 그 전형을 보여 준다. 그러나 독서가 지니는 깊고 넓은 가치와는 상반되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독서와 토론 수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교수자나 학습자 중에는 아직까지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한 수업의 어려움이나 수업 시수와 수강 인원, 교실 시설 환경 등의 교육 여건 제약에 따른 수업 운영의 물리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다. 이에 사고력과 표현력을 요하는 독서와 토론 교과 수업은 학습자나 교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수업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학에서는 인문 교양교육 과정에서 독서, 글쓰기의 교육적 가치를 간과하지 않고 그것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어려움 속에 수행되는 독서와 토론 교과 수업이 점차 본질적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대학교육이 담당해야 할 교육의 실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많은 대학에서 독서, 토론, 글쓰기, 말하기 영역의 교과들이 교양필수 교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1] 이러한 대학 교육의 현황에서 교과 운영에 대한 분석과 진단, 개선과 개발의 활동은 학계와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유의미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효용적 목적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의 원론이자 책임이기도 한 것이다.

본고는 교과 운영에 대한 분석, 진단 활동의 하나로서 고전읽기, 토론, 글쓰기, 말하기 영역의 교과를 교양교육에서 중점화하고 있는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교과 수업 운영 사례를 제시하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하는 교양교육의 목표는 "성숙한 인격체가 지녀야 할 품성,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 정보화 사회에 요청되는 판단력과 도덕성 등을 지향해야 한다. 나아가서 교양교육은 제반 학문 분야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일깨우고 자기 표현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계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에 따르면 현재 대학 교양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손동현(2015:11) 참조.

는 것이다. 대구가톨릭대학에서는 2019년 1학기부터 교과명 '독서와토론'을 교양필수 교과로 개설 운영하였다. 두 학기의 수업 운영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작게는 대구가톨릭대학 수업 운영의 개선과 발전의 자료로 삼고 넓게는 사고력과 표현력 향상을 지향하는 교과목들의 효율적인 수업 운영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수업 운영 분석

1) 교과목 개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2018년도 대학 교양교육 심화컨설팅에서 대구가톨릭대학에 '고전독서 영역'에서 내실 있는 교과가 새로 개발될 필요를 권고하였다.[2] 이에 대구가톨릭대학에서는 기존의 '글쓰기와말하기' 교과를 개편하여 2019년부터 '독서와토론' 교과를 새롭게 개설하였다. '독서와토론'은 '독서' 활동을 기반으로 사고력과 표현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둔 교과로 매학기 30개 이상의 분반이 개설된다. 수강 정원이 1분반 60명인데 교양필수 교과이므로 30개 분반 중 90% 이상이 50~60명의 수강 인원을 유지하고 수강생이 30명 미만이면 폐강이 된다. 주 수강생은 1학년이 80~90%를 차지하고 졸업 전 이수해야 하는 교양 필수 교과의 특성상 2~4학년 수강생들이 전체 수강의 10~20% 정도를 차지한다. 토의, 토론이 중심이 되는 교과에서 60명의 수강 인원은 수업 운영에 매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소이다. 동일 유형의 타 대학 수업

2) "'고전독서 영역'의 경우 고전독서 영역에 맞는 교과목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학점을 부여할 가치가 있는 내실 있는 교과가 새로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8:6) 참조.

정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이기도 하다.[3] 더욱이 30명 미만의 수강생이 있는 분반은 폐강되는 것이 교과의 본질과 개설 취지에 모순적으로 이해되는 점이기도 하다. 이는 교과의 가치와 중요성,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학의 교육여건 하에서 꾸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독서와토론'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는 기본적으로는 전체 학과의 교원들이 모두 담당할 수 있다. 현재 담당 교수는 전체 16명으로 인문사회계열 교수가 13명이고 자연 공학 계열 교수가 3명이다. 수강 학생 중 자연공학 계열 학생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자연·공학 계열 교수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16명의 교과 담당 교수는 『논어』, 『목민심서』, 『멋진 신세계』를 공통 도서로 하여 수업 운영을 한다. 수업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담당 교수가 자율적으로 선택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학기 초와 말에 교과 워크숍을 열어 교과 운영 활동에 대한 성과와 개선 등을 짚으며 교육 정보를 공유한다. 성적 평가는 도서 내용의 이해 정도를 기준으로 시험, 발표와 토론, 독서노트 작성 과제 등을 세부 항목으로 하여 100% 평가한다. 학기말 교과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에 따르면 교과의 본질적 목적을 교과 활동에서 심화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수업 활동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2) 활용 도서

그간 대학 교육에서 교양 교육의 폭과 깊이에 대한 인식은 청년 세대에게 미치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일깨워 교양교육의 영역을

---

3) 서울대를 비롯해 동일 유형의 교과를 운영하는 대학의 수강 정원은 대부분 1분반 25~30명으로 정하고 있다.

세분화하여 교과목과 교수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실천하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었다. 그 중 독서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교과 운영 사례는 교과 운영의 능률과 본질적 교육 목표 실현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토대가 되었다.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교과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기존의 '글쓰기말하기' 교과를 확대 개편하여 2019년부터 시행한 교양필수 교과목이다. 교과목을 개발하고 개설하는 단계에서 학습자 상황은 무엇을 얼마나 읽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교양필수 교과 수강생의 대다수가 신입생 1학년이라는 점, 신입생들이 무리 없이 교과 적응을 할 수 있는 수업 운영이 도서 선정의 핵심 기준이었다. 이에 많은 분량의 어려운 고전을 여러 권 선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수업 운영에서 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4] 이는 이원봉(2017:133)에서 "최근 대학에서 운영되는 고전 독서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수의 독서량을 요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대학교 고전읽기 교과의 경우, 한 과목에서 읽어야 할 책이 모두 25권이라고 하는데, 이들 책을 학생들이 과연 읽어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한 것이나 독서 교육에서 '다독'에 치중하는 것은 고전 읽기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 독서 교육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은 독서량에서부터 체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독서'와 '토론'의 본질적 교육 목표를 간과할 수도 없다. 대구가톨릭대학 '독서와토론' 수업에서는 주어진 교육 여건에서 '독서'와 '토론'의 본질적 교육 목표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독서 분량으로 인문, 사회, 자연 분야의 고전 각 1권씩 모두 3권을 정하였다.

---

4) "고전 읽기 교과목 수업 운영이 교수자에게는 엄청난 업무 부담의 스트레스가 되고 학습자들은 독서를 고통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타 대학의 교과 운영에 대한 적나라한 견해는 도서 선정을 하는 데 있어 되새겨 볼 문제다. 손윤락(2019:298~304) 참조.

대구가톨릭대학 '독서와토론' 수업의 교재 도서 3권은 사회철학 분야의 『목민심서』(정약용 저), 인문철학 분야의 『논어』(공자 저), 자연철학 분야의 『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 저)이다.

『목민심서』는 공직자 직업윤리의 지침서로서 대표되는 책으로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저서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의 공직 수행의 명암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한 16책 48권의 방대한 분량의 책으로 현대 공직자들의 필독서로 지정되기도 할 만큼 공직자로서 공직 수행에 있어서의 기본자세와 실천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본 교과 수업에서 이 책은 예비 사회인으로서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보다 중요한 인격적 자기 수양과 직업윤리 의식의 소양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핵심 선정 이유이다. 『목민심서』를 통해 학습자들은 소통의 리더십과 저자인 정약용의 삶의 자세와 정신적 가치를 체험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논어』는 공자의 질문과 답을 통해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와 인격을 깨우쳐 주는 책으로 남녀노소가 평생을 두고 읽는 고전으로 손꼽힌다. 공직자 윤리에 초점이 있는 『목민심서』와는 다르게 『논어』는 '학문', '교육', '효', '충' 등 사람의 삶 전반에 걸쳐 지혜와 덕을 말하며 그것이 곧 군자의 자격이라고 말한다. 『논어』를 읽으면서 학생들은 삶에 대한 통찰력과 세상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공자의 질문과 답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점차 사라져 가는 인간 본연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도서이다. 마지막으로 자연과학 분야의 도서 『멋진 신세계』는 올더스 헉슬리가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이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위험과 공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공상과학소설이다. 1932년에 출판된 이 책의 내용이 지금의 과학 기술 문명을 볼 때 상상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작가의 뛰어난 예지력을 또한 높게 평가하는 작품이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과히 가볍지 않고 과학문명의 발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과 자부심을 갖는 이 시대에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자각력을 일깨워 비판적 성찰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르가 소설이기에 독서의 흥미로움도 주는 책이다.

수업은 이 3권의 교재를 주당 2시수 15주에 걸쳐 진행되는데, 1권의 교재를 3~4주간씩 다루게 된다. 1학년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읽고 토론하는 것을 소화하고 교과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게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3권의 도서 분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동일 교과 타 대학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인 교과 효용성의 면에서는 적절한 분량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한 학기에 완독은 어렵다는 것을 학생들의 평가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5] 2학점의 교양필수 교과로서 주당 2시간 수업으로 15주 간 이루어지는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교과 운영에서 3권의 도서를 우선적 읽기 교재로 삼은 것은 분량 면에서는 적절한 분량으로 볼 수 있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최종 평가를 볼 때 3권의 책을 읽는 것에서는 대체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들의 어려움은 오히려 쓰기에서 나타났다. 책을 읽고 작성하는 독서노트 쓰기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다. 또한 책의 선호도에 있어서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가장 높았고 『목민심서』와 『논어』는 옛말이 많아 이해가 어려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논어』에 대한 유

5) 분량이 많은 『논어』와 『목민심서』는 발췌 요약본을 활용하였는데 발췌 요약본 읽기가 수월하고 효과적이라는 좋은 평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발췌 요약본을 읽지 않아서 수업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의미한 평가를 하였다. 이는 인간의 도덕성이나 진정성이 무색해지는 현 시대 상황에서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지적과 깨우침을 주는 『논어』의 명언이 고리타분한 옛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말이라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새롭게 자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평가로 보인다.

3) 수업 활동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수업은 '강의-독서-글쓰기-발표와 토론'을 기본 내용으로 하여 운영된다. 여기에 '독서노트 공모전'과 '고적 답사 현장 체험'을 수업과 연계한 비교과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교과 학습의 심화를 이끌었다. 이들을 살펴본다.

(1) 강의

3권의 도서를 도서 한 권당 3주~4주씩의 균등한 시간 할애로 순차적으로 해 나갈 때, 먼저 도서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해당 도서의 형식 정보와 내용 정보에 대한 교수자의 강의가 처음으로 진행된다. 강의에서는 교재 도서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 교재 도서에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보조 자료로 관련 영상을 비롯해 교과 관련 사진 자료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 교수자의 강의는 향후 있을 발표와 토론의 스키마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사고력 확장을 돕는다. 강의 중간 평가에서나 학기말 평가에서나 교수자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독서와토론' 수업에서 교수자 강의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수업 시수가 충분하지 않은 토론 중심의 수업 상황에서 교수자의 강의가 강의식 수업 방식으로 치중되어 학습자들의 능동적 사고와 표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

으로 수업에서 교수자의 강의는 향후 수업 과정을 활성화하고 학습자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학습자 반응에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토론 수업에서 교수자의 조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2) 독서 퀴즈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수업의 중점이 '독서'에 기본을 두고 '토론'을 병행하는 것이므로 우선은 학생들이 책을 읽는 것이 수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책을 읽고 독서노트를 작성하고 내용에 대한 생각을 교류하며 다양한 의견을 말하는 토론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 교과에서 독서의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학생들의 독서 부담을 줄이면서 독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Kreft 4단계 문학 이해과정'이나 'Waldmann의 4단계 문학 이해 모델'을 활용하여 독서 방법을 설명한다.[6] 이론의 제시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학생들이 독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에서는 토론 활동이 중심이 되고 수업 교재로 선정한 도서

---

6) 'Kreft 4단계 문학 이해과정'이나 'Waldmann의 4단계 문학 이해 모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승우・손혜숙(2014) p338~341 참조.
(1) Kreft 4단계 문학 이해과정/ Kreft 4단계 표준형
① 주관의 단계: 학습자가 텍스트를 주관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단계
② 객관의 단계: 주관적 이해에서 벗어나 객관화를 시키는 단계
③ 습득의 단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습득과정의 단계
④ 적용의 단계: 주제를 사회 역사와 연관시키는 단계
(2) Waldmann의 4단계 문학 이해 모델
전단계: 문학텍스트에 접근하기 위한 유희적인 분위기 마련
① 1단계: 문학텍스트의 읽기와 수용
② 2단계: 문학텍스트를 구체화하는 주관적인 습득
③ 3단계: 문학텍스트의 충실한 분석을 통한 파악
④ 4단계: 문학텍스트에 대한 텍스트 외적인 가치대립

읽기는 기본적으로 수업 외 시간에서 학생들이 읽어야 한다. 그러나 교훈적 명언이 주를 이루는 『논어』의 경우는 수업 중 학생들이 돌아가며 직접 읽고 논의점을 찾아 토의 토론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60명의 학생들이 모두 한 번씩 읽을 때 교수자가 보충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수업 중 독서를 하는 것이다. 또 독서한 내용 이해를 위해 하는 독서 퀴즈 활동은 학생들이 도서에 대한 기억과 내용을 정리하는 데 유의미한 평가 반응을 나타내었다. 독서 퀴즈는 책의 객관적 내용 정보 위주로 이루어진다. 팀별 단위로 하기도 하고 개인 단위로 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직접 독서 퀴즈를 작성한 후 동료들에게 출제하는 방식의 퀴즈 활동도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독서 퀴즈 출제는 다소 미숙하여 유의미한 활동 결과를 내기에는 미흡함이 있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묻고 답하는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질문을 보완하는 교수자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⑶ 글쓰기

수강 인원이 50~60명인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수업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팀별 활동으로 진행된다. 시간적 제약으로 개인별 발표와 토론 등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점도 있으나 팀별 활동에서 토론 수행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활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별 활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개인별 글쓰기 활동이 있다. 3권의 도서를 읽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잡아 먼저 개별 글쓰기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멋진 신세계』를 읽고 등장인물을 분석해 본 후 '주인공 존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보십시오.'라든지, '무스타파몬드와 존의 대화를 바탕으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보십시오.'와 같은 주제를 잡아 글쓰기를 할 수 있다. 글쓰기의 분량은

2,000자 정도로 하여 본 교과의 개인 과제로 제시되는데, 학생들은 대체로 큰 어려움 없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물론 도서에 대한 흥미도나 글쓰기 주제 난이도에 따라 차이는 있다. 『논어』나 『목민심서』는 『멋진 신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서, 토론, 글쓰기에 있어 어렵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다.[7]

〈글쓰기 예시〉

주제 : 『멋진 신세계』에서 무스타파몬드와 존의 대화를 바탕으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보십시오.
무스타파 몬드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좋아하고, 존은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한다. 무스타파 몬드는 오직 자칭 '문명인'들에게만 안락한 사회를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반면 야만인 존은 무스타파가 평가 절하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무스타파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선다. 우리는 여기서 자칭 문명세계와 야만세계의 행복 가치관이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들의 주장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무스타파와 같은 자칭 문명세계가 추구하는 행복에는 우리가 현재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문명인과 야만인 간의 인종차별까지 존재한다. 이를 보고 나는 오히려 1930년대 독일 나치정권이 추구하던 전체주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자칭 문명인들의 주장은 행복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불행을 향해 타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해 보자, 무스타파의 주장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만약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남을 억압하는 등의 행동에 재미를 붙인 독재자들일 것이며, 그들 또한 이러한 세계에서는 그다지 오래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존과 같은 야만세계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어떠한가? 적어도 자칭 문명세계에서 주장하는 행복보다는 자유도가 높다. (중략) 나는 야만세계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야만세계에서 추구하는 행복도 완전한 행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 동화 '파랑새'를 읽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 동화를 읽고 나는 진정한 행복이란 건 우리의 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멋진 신세계의 세계관에 비추어 보면 자칭 문명세계에서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찾을 수가 없었던 반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한 야만세계에서는 드문드문 행복이라는 감정을 찾을 수 있다. (후략)

7) 3권에 대한 글쓰기를 각 1회씩 하고, 개인 과제로서 평가는 학생들이 비교적 부담이 적은 『멋진 신세계』의 주제 글쓰기 1편에 대해서만 한다.

⑷ 발표와 토론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수업에서 발표와 토론 방식은 교과 담당 교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수업 교재로 활용하는 3권의 도서를 읽고 주제에 따라 학생들이 의견을 말하며 발표하고 토론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성을 지닌다. 본고에서 사례로 제시하는 수업에서 발표는 주제에 대한 조별 토론을 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업의 우선적인 목표가 고전 도서를 읽는 것에 있고 이를 확대 적용하는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교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수업에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도서별 발표는 조별 단위로 하여 각 1회씩 한다. 6~7명을 한 조로 하여 수업 중 주어진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한 후 발표 순서를 정하여 발표를 진행한다. 주 1회에 2시간 수업을 조별 토론을 하고 교수자는 주제를 제시하고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토론의 스키마를 어느 정도 제공한다. 또한 토론 중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을 하고 보충적 설명을 할 수도 있다.[8] 주 1회 수업에서 3~4팀이 15~20분의 시간 범위에서 발표한다. 발표 중 1회는 PPT를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2회는 자유 형식으로 발표를 한다. 발표에서 학생들은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 등의 보조 자료를 활용 제시한다. 발표에서는 학생들 상호간에 질의응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청중 학생들은 모두 발표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9] 학생들이 제출한 발표기

8) 토론 주제 설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각 도서에 대한 주제를 자유롭게 정하여 토론하는 방법도 있으나 교수자가 주제를 공통적으로 제시하면 여러 학생들의 생각을 풍부하게 들을 수 있고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소 통제적인 토론 주제 설정 방법을 택하였다.

9) 기록지에 배점을 하는 형식이 있지만 이를 ‘평가지’라고는 하지 않았다. 동료 발표를 경청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동료 피드백의 자료로 활용한 것으

록지는 발표 성적 평가에 반영하기보다는 교수자가 내용 정리를 하여 차시에 동료피드백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발표 예시〉



토론은 본 교과가 독서 중심의 토론이므로 한 가지 논제에 대한 찬반 양극 토론은 지양하였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혹은 독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면서 서로의 의견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제시하며 상호 활동의 토론을 한다. 조별로 토론한 후 각 조의 의견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다른 조에서 다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의 토론도 병행한다. 도서별 토론은 1회~2회 진행한다.[10]

로 성적 평가에 이 기록지의 내용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성적 평가는 교수자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서 부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10)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 수강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 토론

본 교과에서 활용한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

〈도서별 토론 주제〉

① 『논어』:
- ㅇ 학문, 예절을 강조한 유가사상과 실용, 부국강병을 강조한 법가 사상을 비교해 보고 각자의 의견을 말해 봅시다.
- ㅇ 지금까지 나의 배움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그 소회를 얘기해 보자.
- ㅇ 공자가 말하는 예와 현 시대의 예를 비교해 보자.
- ㅇ "예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듣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하지 말아라."에 해당하는 생활 속 실천적인 예는 무엇인가?

② 『목민심서』:
- ㅇ 공직자에게 거부감 혹은 비호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 ㅇ 각자가 생각하는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 ㅇ 청렴한 공직자를 한 사람 이상 소개해 보자.
- ㅇ 『목민심서』 애민 1조 양로는 오늘날의 노인복지에 비추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노인복지를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토의해보자.
- ㅇ 백성의 어려움은 부패한 관료들의 탓인가?
- ㅇ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대책 방안을 제시해보자.

③ 『멋진 신세계』:
- ㅇ 작가가 말하는 '멋진 신세계'는 무엇인가?
- ㅇ 본인이 문명과 야만 사회 중 택일을 한다면? 그 이유는?
- ㅇ 책에서 소마는 무엇인 것 같은가? 오늘날 우리의 세계에서 혹은 나에게 소마는 무엇인 것 같은가?
- ㅇ 존이 문명 세계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킨 후 문명 세계의 최고 통치자 무스타파몬드와 나누는 대화를 바탕으로 자신

을 2회 이상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발표의 질의응답에서 이러한 토론의 부족이 어느 정도 보완되는 효과가 있다.

이 생각하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 추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 복제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 지금까지 성공한 동물복제의 사례는? 이 때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

조별 단위로 이루어지는 본 교과의 발표와 토론 활동에서는 자신의 독서 경험을 토대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뿐만 아니라 주제 논의와 발표 구성도 함께 논의하여 창의적 사고와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유의미한 활동이 된다. 이로써 학생들은 읽기에서부터 내용 정보에 집중하고 글로써 사고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계가 되며 이를 토론의 형식에 따라 말하기 표현으로 이어가면서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5) 독서노트

본 교과에서 수강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독서노트 작성이다. 개인별로 작성하는 이 독서노트는 세 권의 도서에 대한 이해와 수업 활동의 활성화에 토대가 되는 과정이다. 기본적으로는 교과의 공통 독서노트 양식이 있으나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독서노트를 활용한다. 본 수업에서는 독서노트 작성은 기본적으로 세 권의 도서를 자유롭게 읽고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11] 이는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우선 읽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고, 나아가 독서의 참 가치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한 학기 동안 독서노트를 자유롭게 작성하고 학기말에 과제로서 제출한다.[12] 제출 분량으로 최소 독서노

11) 교과 담당 교수에 따라서 세 권 중 한 권을 선택해 읽고 독서노트를 작성하기도 한다.

12) 단, 본 수업에서는 수업 중 독서노트 쓰기를 하지는 않는다. 수업은 발표와 토론이 주를 이루고 독서노트는 개별적 시간을 활용해 작성하도록 한다. 이 또한 교과 담당 교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수업 중 독서노트

트 10장을 정해 놓고 있으나 이 또한 자율에 맡기고 있다. 두 학기의 결과로 봤을 때 학생들은 독서노트 작성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독서의 의미에 공감하면서도 독서내용을 기록하고 요약하고 적용해 보는 독서노트 작성을 어려워하였다.

〈독서노트 예시〉

「독서와 토론」 (　　)분반　　독서노트	
작성자	이름:　　학과:　　학번:
도서명	논어
저 자	공자 저 / 김형찬 옮김
독서부분	제 5편 - 공야장(公冶長) (P. 57~75)
독서일자	2019 / 10 / 8 ~ 2019 / 10 / 9
구 분	내　　용
키워드	공야장(公冶長), 인, 도, 공손, 공경, 은혜, 의리
주요 내용	논어의 제 5편 공야장(公冶長)에서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 간의 대화나 문답, '염옹'이나 '자로'에 대한 공자의 말씀, '미생고'나 '자문'과 같은 옛 사람들의 행실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도(道)와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공자가 늘 강조하는 '인(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인상적인 구절	자공이 여쭈었다. "공문자는 무엇 때문에 '문'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영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므로, 문이라고 한 것이다."
질문·의문점	Q : 자공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여러 가르침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성과 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왜 공자는 이들에 대해 말하거나 다루고자 하지 않았을까? A : 성(性)은 타고난 본성이나 성품을, 천도(天道)는 자연의 이치를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현실 속에서 사람인 우리가 쉽게 검증할 수 없고, 추상적인 논의에 빠지기 쉬운 것이기에 공자는 섣불리 제자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타	나는 논어 속 자공이 말한 '공문자'의 행동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껏 살면서 온갖 분야에서 유식하고 영민한 사람들은 많이 봐 왔지만, 그들 중 대부분이 자신의 지식을 뽐내거나 무조건 남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이었지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나는 아직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며, 나이가 많지도 않다. 하지만 훗날 내가 지식과 지혜를 얻는 때가 오게 된다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덕이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분명 배울 점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배움을 구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게 되었다.

작성을 하는 경우 독서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반응도 있다.

⑹ 수업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

대구가톨릭대학에서는 ‘독서와토론’ 교과와 연계하여 비교과프로 그램으로 ‘고적 답사 현장 체험’과 ‘독서노트 공모전’을 운영한다. 이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2019년 2학기에 1회 운영을 하였고 2020년 2회차로 운영 중이다. 교과 ‘독서와토론’에 대한 인지도나 사고와 표현 활동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는 데 본 비교과프로그램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① 독서노트 공모전

‘독서노트 공모전’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독서와토론’ 교과목의 도서 3권을 대상 도서로 하여 그 중 1권 선택하여 정해진 노트 양식에 따라 5장~10장 분량으로 작성한 후 공모 지원하는 것이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상 도서 선정이나 공모 형식이 교과 ‘독서와토론’의 활동과 유사하여 교과 수업 연계의 색깔이 비교적 뚜렷하다. 실제로 공모 지원자의 80% 이상이 현재 ‘독서와토론’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다. 지원된 독서노트 편수에서 6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여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여한다.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는데, 상금은 우수작은 10만 원, 장려작은 7만 원이 수여된다. ‘독서와토론’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이 모두 1차 심사에 참여하여 1차 선정을 하고 다시 2차 심사를 5~6명의 교과 담당 교수가 심사 위원으로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각 원고마다 Copy Killer 시스템을 활용해 표절 검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과에서 제출하는 과제와 동일한 원고는 공모 지원 자체를 불허한다. 2019년 2학기 1회 ‘독서노트 공모전’의 지원자는 총 161편이었다. ‘독서와토론’ 전체 수강자 수와 비교할 때 지원자

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는 교과 수업에서 작성하는 독서노트와는 별개로 작성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서노트공모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해당 지원자의 대다수가 도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독서노트공모전'은 교과 학습에 대한 적극성을 유도하고 고전 독서를 활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② 고적 답사 현장 체험

'고적 답사 현장 체험'은 '독서와토론' 수강자를 대상으로 고전과 연계한 고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2학기 제1회 '고적 답사 현장 체험'의 고적지는 전라남도 강진의 다산 초당과 다산 박물관이다. 이는 교과 '독서와토론' 수업의 교재 도서 『목민심서』와 관련된 곳으로 『목민심서』의 저자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와 그의 저술작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참여 인원을 70명으로 한정하여 당일 일정으로 답사가 이루어진다. 교과 수업에서 『목민심서』를 학습한 학생들은 '다산 초당'과 '다산 박물관'을 답사한 후 기행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참여 인원을 70명으로 한정한 것은 전체 2,000명이 넘는 '독서와토론' 수강생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로 수업 연계 비교과 활동의 취지보다 결과적인 가치는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또 고적 탐방 후 기행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 학생들에게 참여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적 답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 또한 어려운 옛말과 시대적 문화를 이해하고 『목민심서』 집필 의도를 실제적이면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교과 학습의 심화 이해에 효과적인 활동임은 분명하다. 고된 활동 중에도 학생들은 수업에서 간접적으로 익혔던 자료와 내용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다는 반응

을 보여 매우 고무적인 비교과프로그램으로 판단한다.

〈목민심서 실물과 다산초당〉




4) 평가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의 평가는 '시험(50%)', '과제(20%)', '출석(10%)', '수업태도(20%)' 네 영역에서 평가한다. 평가는 여타의 전공 교과나 교양 교과와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한다. 이에 객관성이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보장되는 시험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50%의 비중을 둔다. 시험 출제는 도서 내용 지식 평가 문항과 도서별 토론과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논점을 제시하여 자신의 견해를 쓰는 문항을 5:5 정도의 비중으로 한다. 시험 결과로 볼 때 논점에 대한 견해를 쓰는 것에 비해 도서 내용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에 대한 답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를 중점으로 본다면 내용 지식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것은 큰 약점이자 수업의 효용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서에 대한 개괄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지식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확장하는 사고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토론'을 중점으로 볼 때 각 도서별 논점을 잡고 이에 대한 책의 내용들을 짚어 가며 세상과 삶에 대한 적용을 하는 비평 쓰기는 본 수업의 근본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효용적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글쓰기 과제가 있지만 시험을 통해 본 수업의 교재 도서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필수 평가 영역으로 효율적이라 판단한다. 평가영역 중 '수업태도(20%)'는 전반적인 수업 참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대체로 토론 참여도를 중점 평가로 하며 독서노트 작성의 성실도, 퀴즈 참여도, 수업 연계 비교과 참여도, 발표와 경청의 자세[13]를 세부 평가 기준으로 둔다. 본 교과는 교과 특성상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과 과제가 많은 편인데다 그 수행의 무게도 가볍지 않다. 이는 교과 취지에 따른 교육 목표의 달성에 따른 것이다.

3. 성과와 제안

이 시대 청년 세대에게 고전은 삶에 대한 성찰적 기회와 세상을 보는 안목을 얻는 데 가장 효용적 가치를 지니는 교재라는 것을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도 인문학 중심의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취지로 'Core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운영하는 Core사업의 핵심 교육과정으로 고전 독서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취업률을 대학 존재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참인재를 길러 내고자 하는 대학의 실천의지이다. 고전독서를 통해 길러진 인문학적 소양은 취업에서도 발휘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역량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고전 교육은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확대되어

13) 본 교과에서는 조별 발표를 들으며 질의응답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발표기록지'를 학생들 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교수자는 학생들의 발표기록지를 검토한 후 차시 수업에서 '동료 피드백'의 결과로 말해 준다. '발표기록지'에는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PPT를 비롯한 발표 매체 자료에 대한 의견, 발표 태도에 대한 의견 등등 상당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것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업 운영에 대한 진단과 평가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확인할 것이며 이를 보완 개선함으로 대학 교양교육의 본질적 가치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교과는 이러한 고전 독서의 취지와 가치를 부여잡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실천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이 장에서는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수업에 대한 성과와 제안을 정리한다.

1) 성과

1학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독서와토론'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통합적 활동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법을 연구하고 적용하였다. 수강생이 50~60명, 1주 2시수로 진행하는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도 『논어』, 『목민심서』, 『멋진 신세계』 3권을 읽고, 글로 쓰고, 논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활동은 처음에 가졌던 교과 수행 부담을 떨치고 고전의 의미를 깨우치고 세상살이에 적용하며 한층 성숙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가장 큰 성과이다.[14] 이는 본 교과의 지속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수업에서 수행한 독서노트 작성이나 독서한 내용에 대한 논제를 설정하고, 동급생들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이를 정리하여 다수 앞에서 발표로 전달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1학년 학생들이 대학의 학습문화를 익히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교양 필수 교과로서의 정체성도 인식할 수 있었다. 보다 근본적인 성과는 수업의 활동들이

14) 이는 학기 마지막에 하는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서 대체로 나타난 반응이다. 수강생의 100%가 강의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고전을 접한 것에 성취감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구체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3권의 도서를 정독과 완독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고전 독서에서 주는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접하지 못했고, '독서와토론' 수업이 아니었더라면 한 번도 펼치지 않았을지도 모를 『논어』, 『목민심서』, 『멋진 신세계』를 읽었다는 데 가장 큰 성취감을 나타내었다. 주교재로 선정한 『논어』, 『목민심서』, 『멋진 신세계』에 초점을 두고 관련 도서들에 대한 독서는 학생 자율에 맡긴 것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이끄는 데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토론에 있어서도 입론과 반박을 갖춘 양자 대립의 토론보다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토의 형식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비교과프로그램 '독서노트 공모전', '고적 답사 현장 체험'은 교과 수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았고 학생 참여도도 높아 교과 수행의 결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15] 이러한 성과들은 향후 학생들의 독서 습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인재의 역량을 기르는 데 토대가 될 것이다.

2) 제안

현재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수업의 수강정원은 60명이다. 개설 가능 최소 인원은 30명이다. 다시 말해 수강생이 29명이면 폐강이 되는 것이다. 읽기, 글쓰기, 토론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다수의 수강생은 수업 활동 속에서 다양한 견해를 들으며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

15) 학생들은 교과 학습을 심화 이해하는 데 비교과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학기말 강의 평가 내용에서 다수가 언급한 바 있다.

인 수업 운영에서 50~60명의 수강 인원은 절대적인 약점이다. 이는 동일 유형의 교과를 운영하는 타 대학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더욱이 주당 수업 시수가 2시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16] 이러한 현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 교과 담당 교수자들은 '독서와토론' 교과의 기본이며 중점인 '독서'의 방법과 전략에 대한 전문성을 공동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으로 쌓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 수업 내용 비중에 따라 평가 항목의 비중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서노트 작성과 토론은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활동 비중이 매우 높은 항목이므로 평가 항목이 추가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 보상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과와 연계한 비교과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자발적 학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세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독서노트공모전'의 경우 대상 도서를 교과 주교재 도서와 동일하게 한 점은 학생들의 독서 부담을 줄이고 교과 수행을 심화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독서와 독서노트 작성에 대한 흥미를 이끄는 데는 부족하여 학생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진단한다. 이에 공모전 대상 도서를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의 유연한 독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의 주교재와 관련된 도서를 추가한다면 공모전 참여와 더불어 학생들의 독서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읽기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적 답사 현장 체험' 프로그

16) 이에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교과는 2020년부터는 3학점 3시수로 확대하여 한 주에 75분씩 2회에 걸쳐 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아직 수강 정원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교과 개설 1년 만에 수업 시수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교과의 중요도나 가치에 대한 공감이 바탕이 된 고무적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램은 참가 인원을 70명으로 한정한 데서 아쉬움이 있다. 참가를 원했으나 인원 한정에 참가할 수 없었던 학생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업과 연계된 현장 학습 체험이므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독서와 토론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도나 흥미도, 수행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팀 활동이나 수업의 상호 작용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은 교수자의 교수 전략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수업에서도 전공 계열에 따라서 수업 활동의 유연성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공 계열이 수업 운영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수업 활동 유형의 선별적 적용이나, 토론의 논제와 형식의 난이도, 과제의 분량에 대한 개선을 학습자 중심에서 세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서와토론' 교과 학습에 대한 환류평가 실행을 통해 학습자 요구 분석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교과 수행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마무리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삶에 대한 성찰적 기회가 되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얻는 데 가장 효용적 가치를 지니는 교재로서 대학 교양교육의 핵심이 되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에 많은 대학에서 독서, 토론, 글쓰기, 말하기 영역의 교과들을 교양필수 교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교과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진단으로 보다 효율적인 수업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학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교과 운영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정된 교육 여건에서 최대한의 교과의 본질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수업의 구성 요소들을 분석 정

리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짚고 제안을 하였다. 대학 교육과정 안에서 고전 읽기, 글쓰기, 말하기, 경청하기를 경험하고 이를 스스로의 삶에 적용하며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의식을 갖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교과의 목표이다. 1학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대구가톨릭대학의 '독서와토론' 수업에서는 많은 책을 읽거나 많은 분량의 글을 쓰게 하는 것보다는 고전에서 실질적인 삶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생각의 통로를 열어주는 노력이 토대가 되어 학생들 스스로 독서노트를 작성하고 동료들 간의 독서 논제에 대한 견해를 토의하고 경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교과와 연계한 비교과프로그램 '독서노트공모전'이나 '고적 답사 현장 체험'은 교과 학습의 성과로 이어지는 데 효율적으로 작용하였다.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 읽기와 토론의 위상은 취업률을 대학 존재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참인재를 길러 내고자 하는 대학의 실천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고전독서를 통해 길러진 인문학적 소양은 취업에서도 발휘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역량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 고전 교육은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업 운영에 대한 진단과 평가로 확인될 다양한 시행착오를 보완 개선함으로 대학 교양교육의 본질적 가치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

김영학, 「대학 교양교과로서의 고전읽기 수업모형 연구–조선대학교 〈명저읽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86,

2019, pp. 9–48.
김정녀,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독서토론 교육 방안 연구–비교과 프로그램 〈창의적 고전 읽기 세미나〉 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배달말학회, 『배달말』 55, 2014, pp. 423–450.
손동현, 「교양의 의미와 교양교육의 의의」,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제6회 교양기초교육 관련 집단컨설팅』, 2015, pp. 11.
손윤락, 「세계명작세미나–공통교양 고전읽기 교육의 확대와 그 명암–」, 한국교양교육학회, 『한국교양교육학회 춘계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19, pp. 298~304.
이수곤, 「고전을 활용한 읽기, 쓰기 수업의 효율적 운영 방식에 대한 시론(試論)」, 반교어문학회, 『반교어문연구』35, 2013, pp. 351–377.
이원봉,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독서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사고와 표현』10, 2017, pp. 133.
이황직, 「고전읽기를 통한 교양교육의 혁신–숙명여대의 “인문학 독서토론” 강좌를 중심으로–」,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26, 2011, pp. 517–548.
한승우 · 손혜숙,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독서토론 수업운영 방안 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문연구』42, 2014, pp. 333–356.

2. 단행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8년도 대학 교양교육 심화컨설팅 진단결과보고서』 42, 2018, pp. 6.

(**투고일**: 2020. 5. 19 **심사완료일**: 2020. 6. 22 **게재확정일**: 2020. 6. 23)

서수백
소 속: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주 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13-13
전자우편: sbseo93@cu.ac.kr

[Abstract]

A Case Study on a Classic Reading Education in University

Seo, Su-b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show operation case reading and discussion class in A university. Reading and discussion class in A university begins from year 2019. This class of main activities is Reading classic and discuss about the book. it is learner centraled class. It is a liberal arts compulsory subject that every term open thirty or more class and member of a class is fifty to sixty persons. The aim of this class improve learner's thinking faculty and power of expression. but this class restricted by time operat two hour once a week. Use an 『*Noneo*』, 『*Mokminsimseo*』, 『*Brave New World*』for teaching materials in class. The course of a class is lecture, reading note, express view, discussion, non curriculum program. Analysis these in order to indicate fruit and improvement of class in study. The value of Classic reading and discussion education is very important in liberal arts education of university. It is connects with social ability. Therefore Classic reading and discussion education have to spread more than now. variety of Classic reading class case analysis is foundation for them.

Key words: Classic reading, discussion, liberal arts education, 『*Noneo*』, 『*Mokminsimseo*』, 『*Brave New World*』, reading note